

진여심을 찾아내 새 아침을

(사)대한불교원용종 종정 일공

다사다난했던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1년 신묘년 희망찬 햇살이 온누리에 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삼독심으로 인한 것이거늘, 하늘이 맑고 땅 위에 물이 맑으면 대지가 풍성하고 윤택해 지듯 우리들의 마음이 맑으면 세상의 혼란도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중생은 마음속의 자비심을 일깨워 진여심을 찾아내고 새해 날마다 아침을 맞이함이 좋은 날이 되기를...



화합 상생의 희망찬 한 해로

(재)대한불교일봉선교종 종정 정각

香根盤於大千沙界 香葉覆於百億彌盧
향근반어대천사계 향엽복어백억미로
德臨萬邦長輝太平 恩霑四海永扇無爲
덕림만방장휘태평 은젓사해영선무위
神聖含萬德之威力 妙明現群靈之畏儀
신성함만덕지위력 묘명현군령지의의
日益道理上報佛恩 時增德香下濟衆苦
일이도리상보불은 시증덕향하제중고
향의 뿌리는 대천 항하사 세계에 서렸고 향의 잎은 백억의 수미산을 덮으니 그 덕은 만방에 다다라 오랫동안 태평하고 그 은혜는 사해를 적서 영원히 무위의 바람이 부소서. 온 누리 온 중생에게 밝고 맑은 불법의 광명이 두루 비추어 화합과 상생의 대도를 열어 나가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합장 축원 드립니다.



인성의 조급함을 버리길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어리석은 생각의 허물을 벗자. 물은 땅의 높고 낮음을 탓하지 않고 흐르며, 바람은 높은 산 낮은 들을 탓하지 않고 스쳐간다. 유독 사람들만이 내야 내야 하며 서로의 잘 잘못을 탓하고 있다. 이는 존재의 유한과 상의 상존하는 인연법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생각의 허물인 것이다. 빠르게 치달리는 문명을 따라잡지 못하는 인성의 조급함이 곳곳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참된 생명의 실상을 모르고 업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묘년 새해에는 일체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오는 바르지 못한 삶의 허물을 벗는 값진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어제는 비가 와서 좋았고 오늘은 꽃이 피어 좋구나 사람은 수행할 수 있어 좋고 짐승은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좋구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길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어제도 그제를 보내니 오늘이었고 내일도 한밤 보내면 오늘인 것을 무엇을 일러 묵은해, 새해라 이르리. 지난해 보내니 또한 올해도 새해를 맞으니 또한 올해인 것을.



삶에 지친 모든 사람이 품고 사는 아주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지난날 아우르지 못했던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새로운 오늘, 새로운 올해인 기대해 봐도 좋겠다.

세계 온 인류 화평하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동짓달 가나간 밤 샅풍에 땃바람 달빛 안고 으스스리는데 북녘 하늘 기러기 울음소리 처량하네 남녘의 원앙은 동지를 뜨는데 남쪽에 이산 가족 한 갑자(甲子)를 지냈구나. 연평도의 눈물은 아직도 핏빛 일세 밝아오는 새해에는 부처님 자비광명이 무명 세상 등축되어 온 세상 온 인류가 화평하기를 부디 기원 하옵나니 굽어살피 주옵소서.



삼학을 닦아 정각을 성취하자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대행 혜인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힘을 모아 고뇌와 중생의 미혹함과 중생의 화난을 없애고 편안함을 얻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계·정·혜 삼학을 닦아서 정각을 성취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선행을 닦고 모든 악행 또한 짓지 않았사오니 원컨대 이 청정한 마음이 항상 삼방세계를 두루 비추시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행복의 길이 열리기를 염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새해에는 육근청정하시고 복덕구족하시길 빌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침에는 남북의 돈점없다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竺土大仙心 東西密相付
축토대선심 동서밀상부
人根有利鈍 道無南北祖
인근유리둔 도무남북조
축토대선, 곧 부처님의 마음은 동서로 은밀하게 부촉했다. 사람의 근거는 다양할지라도 깨침에는 남북의 돈점이 없다. 희망의 신묘년을 맞으면서 남북간 대립이 극치에 도달한 실정입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남북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부처님 전에 기원 합시다.



불법을 생활화하자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명경색상(明鏡色像)하여 보라 부처님 상인가, 중생의 상인가. 무명을 근본무지라 말합니다. 근본무지로부터 맹목적인 생존 의지가 움직이고 그것이 집착과 탐욕을 이르게하여 온갖 괴로움을 낳게되는 것입니다. 12인연은 불교의 세계관이며 인생관으로서 모든 것은 실상이 없어 덧없는 무상이라 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생활화한다면 그대는 바로 중생의 상에서 벗어나 부처님 상이 될 것이니 불화와 다름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며 화합과 희망이 가득한 복된 세상,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음부처 보아 본심으로 가라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시비분별 놓으면 부처가 따로없다
目無所見 無分別
耳聽無音 絕是非
是非分別 都放下
但看心佛 自歸依
눈은, 보는 바 없어 분별심을 여의었고 귀는, 듣는 바 없어 시비심을 끊었네 시비분별 모두를 놓아 버리고 다만 마음 부처를 보아 본심으로 가라



중생을 이익되게 회향하라

(재)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청연

正念堅固 離無明 無量所修衆善行
斷諸生死 迷無餘 智者了智諸佛法
哀愍一切 諸衆生 以如是行而廻向
바른 생각 견고하여 무명을 여의니 수행하고 착한일들 한량이 없네 모든 생사 끊어서 남기지 않고 슬기로운 부처님법 분명히 알아서 모든 중생을 애민히 여기어 중생들을 이익되게 회향하리라.



스스로 돌아보는 한 해 되길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하며 앞으로 감시다. 불자들이여 삼독심에 병든 무지한 중생이 저지른 도발에 호국정신으로 단합하여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하며 안보와 정치 경제를 튼튼히 할 것이며 신묘년 새해에 우리불자들은 동체대비신의 사상을 되새기며 모두가 화합하여 공생공존의 자비심을 오직 일념으로 생활과 실천으로 정진합시다.



모든 집착을 놓아라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放下着
우리들은 항상 아집과 집착의 상태에서 살고 있다. 2011년 새해를 맞이하여 "방하착(放下着)하라. 모든 집착을 놓아라." 마음속의 집착에서 떠나면 내 마음은 더욱 편안해 질 수 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아집과 집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해탈의 지름길이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역시도 바로 당신의 어리석음이 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방하착(放下着) 하길 바란다.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서기 2010년 백호의 해, 다사다난했던 경인년도 이제 우리들 곁을 떠나고 화합과 실천의 해로 발전과 도약을 할 2011년 신묘년 새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각경에 이르길,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 한 번 크게 깨우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마음 한 번 깨닫지 못하고 번뇌망상(煩惱妄想)과 분별심(分別心)에 사로잡히면 중생을 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힘차게 일어서서 불교를 널리 포교하는 용맹정진(勇猛精進)하는 해로 나아갑시다.



마음 열면 천지개명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開
心開即天地盡明 大覺眞性是佛心
宇宙觀察如來心 十方世界慈悲心
飢來喫飯困來眠
열리라 마음이 열리면 천지가 모두 밝아지니 본 마음이 크게 깨달아져 부처의 마음이네 우주를 부처의 마음으로 관하니 시방세계가 부처의 자비심이네 배 고프면 밥먹고困하면 잠잔다.



염불수행으로 삼독심을 정화하자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월호

百年食物一朝塵 三日修心千載寶
백년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이요,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
염불을 함은 끊임없이 들고도는 윤희의 삼독(三毒), 즉 탐진치를 정화시키고자 함이니 정토행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수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마음이 극락이면 목숨 끊어진 뒤의 세상도 극락일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머리위에 아미타부처님을 정대(頂戴)하였듯이, 우리 또한 아미타부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오탁세계를 헤쳐나갑시다.



불국정토 위해 전력을

대한불교선각종 종정 영담

경인년은 정치와 안보, 경제, 종교 등 모든 면에서 대립과 갈등의 한 해였습니다. 지난간 모든 어려움은 아만과 편견 대립에서 출발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이 간절한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신묘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공생공존의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서로 화합하고 다독이며 불국정토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이상은 높게 생활은 낮게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밝은 빛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다르기 마련이며 장점 속에는 결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따라서 신묘년의 큰 화두는 바로 겸손과 겸양입니다. 知行一致自完成 지행일치자완성 謙亨有吉有終美 겸형유길유종미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스스로를 완성시키고 겸손의 덕을 가지면 길하고 시작할 일의 끝맺음을 잘 맺는습니다. 다산과 다복의 꿈이 담긴 신묘년 불자님들 모두 성불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화합하고 양보하는 세상을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새해 아침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으로 어둠은 말끔히 씻어버리고 화합하고 양보하는 세상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삶의 출발은 깨침의 광명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따뜻하고 평화로운 한 해 되도록 꿈속에서 산 삶을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없듯이 탐욕과 무명의 어둠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참된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새벽의 서광에서 비롯되듯 진정한 삶의 출발은 깨침의 광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깨침의 밝은 마음으로 신묘년 새해를 맞이 함으로써 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나무아미타불



불은이 충만하길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경인년도 저만큼 가버리고 또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종도스님 모두의 사마이나 우리겨레 모두에게 불은(佛恩)이 충만하여 신묘년에는 모두 건강과 안락을 기원하며 신년법어를 송(誦)합니다. 絕學無爲開道人 배움을 끊고 할 일이 없으니 도 닦는 사람이 한가롭고 不除妄想澄淨心 망상을 놓고 번뇌를 제하니 더 닦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도다.



보리행을 펼치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음

새해에는 용기있는 삶과 지혜로운 삶으로 마침내 보리행으로 이어져서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열어나갑시다.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대승보살의 정신이요, 세상의 온갖 얼룩진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얼룩진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신묘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따스롭고 행복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깃들고 이웃간에 따뜻한 온정이 넘쳐 나기를 축원드리며, 다 함께 성불합니다.



배움이 곧 부처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驕慢塵中藏般若 교만진중장반야
我人山上長無明 아인산상장무명
輕他不學誦睡老 경타불학용승노
病臥呻吟恨不窮 병臥呻吟恨不窮
교만은 티끌속에 묻히고, 내다 너다 하는 산위에는 무명만 자라 도다. 남을 없이 여기고 배우지 않아 늙어서 기력이 없어. 병석에서 신음하며 한탄만 하고 있네.

